

●그리스도 왕 대축일강론
가난한 이들의 왕이신 예수님 구둣방을 하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노인은 자기 는 살만큼 살았고 이제는 하느님 나라에 잘 가 는 것만이 유일한 소망이라고 늘 생각했습니다. 노인은 죽기 전에 예수님을 꼭 한 번만 뵙게 해 달라고 밤낮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한 덕분인지 노인이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내일 내가 찾아가겠노라." 꿈을 꾀 노인은 어찌나 기쁘고 신바람이 나는 지 새벽부터 온 집을 쓸고 닦으며 부산하게 예 수님을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침부 터 눈이 빠지게 예수님을 기다렸지요. 그런데 시 간이 흘러서 저녁이 다 됐는데도 예수님은 오시 지 않은 것입니다. 그 날도 찾아온 사람은 어김없이 혈뿔은 거지, 동냥 나온 굶주린 모자, 앞 못 보는 소경, 그리 고 몇몇 손님이 전부였습니다. 기다리다 지친 노 인은 "아유, 그럼 그렇지. 아무리 꿈속이라지만 예수님이 내게 오실 리가 있겠나. 개꿈이었나 보 네"하며 무척 실망스러워했습니다. 그날 밤 하루 종일 긴장 속에 지낸 노인이 피곤에 지쳐 잠이 들었는데 또 꿈속에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예 수님을 보자 노인이 대뜸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예수님, 오늘 저에게 오신다고 약속하지 고선 왜 오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지요. "무슨 소리냐? 내가 오늘 세 번이나 너를 방문 했는데... 한 번은 거지의 모습으로, 또 한 번은 굶주린 모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마지막 한 번은 소경의 모습으로 말이다."

오늘 복음 말씀 그대로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며 만나고 싶어하고 예수님 말씀을 한 마디라도 더 듣고 싶어 하며, 천국에 가고 싶은 열망으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하루에도 수없이 마주치는 거지들, 인간다운 삶을 외치다가 감옥에 갇힌 사람들, 치료비가 없어서 병원에서 쫓겨난 사람들, 학교에 가서도 한 끼 먹을 것이 없어서 물로 배를 채우는 결식아동들, 그들이 바로 당신이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왔었노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나 중심적이고 이웃에게 배타적이며 물질주의에 젖어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복음은 참으로 편치 않은 말씀입니다. 우리시대 성향과는 전혀 다른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웃을 위한 선행만이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분께서 만드신 심판의 유일한 기준이라는 사실입니다. 죽은 후에 우리가 심판을 받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는 기준은 소외받고 힘든 이에게 얼마나 위로를 주고 나눠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불편해도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은 이런 나눔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세상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그에 걸맞은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바른 준비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노후대책에 관심이 많지요. 노후를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하고 건강해야 한다면서 열심히 준비합니다. 물론 노후를 위한 준비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신자에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한 준비가 그것입니다. 노후를 위해서는 몇 억을 준비했지만 하느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가난한 이웃을 위한 나눔의 통장이 비어 있

다면 그 사람은 미신자들과 다름없는 삶을 산 사람입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오늘 복음은 경고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주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주지 않은 것이다".

그리스도는 우리 왕이십니다. 그분의 왕국은 오늘 복음 말씀을 실천하는 자에게만 열려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특히 어려운 이웃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기양 신부(서울 대교구 오금동본당 주임)

이런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일만 기억하며 지낼수 있는
오늘 이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향내와 인간미 물씬 풍기는
오늘 이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렌지 같이 시큼하면서도 달콤한
오늘 이였으면 좋겠습니다.

향수를 뿌리지 않았는데도 은은한 향기를
뿜어낼수 있는 오늘 이였으면 좋겠습니다.

산속 깊은 웅달샘의 맑은 물같은
오늘 이였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사람 만났다고 즐거워 할 수 있는
오늘 이였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난 행운아야라고 말하며 어깨에 힘을
더 할 수 있는 오늘 이였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답답하거나 짜증나지 않고
미소 머금을 수 있는 오늘 이였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했다...잘했어...라고 말할 수 있는
오늘 이였으면 좋겠습니다.

●공소일반공지 ●

- ▶고해성사 : 미사 10분전과 미사 직후 고해소앞에서 대기바랍니다
- ▶성가대원 수시모집 : 문의는 성가대장에게
- ▶사목회의 : 매월 마지막 주일
- ▶바느질기도회 : 매월 격주 수요일 오후 7시30분
- ▶울뜨레아 : 매월 첫주일

11월 위령성월 기도
○ 깊은 구렁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사오니 주님, 제 소리를 들어주소서. ● 제가 비는 소리를 귀여겨들으소서. ○ 주님께서서 죄악을 해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리이까. ● 오히려 용서하심이 주님께 있사와 더 더욱 당신을 섬기라 하시나이다. ○ 제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오며 당신의 말씀을 기다리나이다. ●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제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리나이다. ○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이스라엘이 주님을 더 기다리나이다. ● 주님께는 자비가 있사옵고 풍요로운 구속이 있음이오니 ○ 당신께서는 그 모든 죄악에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시리이다. † 기도합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믿는 이들을 구원하시는 하느님,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어 주님을 섬기던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이 바라던 영원한 행복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 주님,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 영원한 빛을 그들에게 비추소서. †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 아멘. ‘본당으로 가는 길’ 기도문 ○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주님께서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 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신다 하셨나이다. ● 저희는 수시로 주님을 잊고 때로는 소홀히 하며 거룩한 하느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나이다. ○ 이제 저희가 주님의 자비를 구하며 청하오니 저희 서부공소가 본당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를 사랑과 일치로 하나 되게 하시고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 마침내 저희가 본당공동체가 되는 날 모두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서부공소 및 본당 소식

- ◎ 11월 구역모임
 - ▶1구역: 29(토) 오후 6시, 소피아 자매집
 - ▶2구역: 29(토) 오후 6:30, 성당 교육관
 - ▶3구역: 29(토) 오후 5시, 박용대 형제집
 - ▶4구역: 29(토) 오후 7시, 이 민 형제집
 - ▶5구역: 29(토) 오후 6시, 오세중 형제집
 - ▶6구역: 29(토) 오후 7시, 이우원 형제집

◎ 음악의 밤 안내 - 11월 28일 저녁 7시 30분
입장권을 구매해주신 교우들께 감사드립니다.
입장권은 당일 구매도 가능합니다.

◎ 바느질기도회 안내
11월 26일 박순웅 형제집에서 있습니다.

◎ 사목회의 안내
다음주 미사후 (30일)에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 사제관 꾸미기 현황
기증 현황: 현금 \$600-무명, \$200 -정경래, \$100 - 김현덕, 쿠키상- 김동규,나이트테이블등 - 박용대, 스탠드(대) 2개
필요한 품목: 휴게실용 2인 소파, 작은 스탠드, 신부님 사무용 의자, 종자 카페트
문의) 이명희 관리부장 B) 519-894-3533
H) 519-896-9628 C) 226-338-0679

◎ 위령 기도 안내
오늘은 김용하 바오로 형제의 장인/김희선 아그네스 자매의 부친이신 이규복님의 위령기도가 있습니다. 고인과 유가족에게 하느님의 평화가 함께 하길 바랍니다.

◎ 2009년 복사단 모집 공고
2009년 복사단을 모집합니다.
문의) 이수빈 세라피나 자매 (519-570-4790)

◎ '본당으로 가는 길' 기도
저희 서부공소가 창립 된지 13주년이 되었습니다. 공소가 본당이 되는 것은 당연히 가야 할 길입니다. 저희가 가고자하는 그 길에 늘 주님이 함께 하시며 지켜보실 것입니다. 모름지기 저희의 정성된 기도와 이루고자하는 마음가짐이 보다 중요한 때 입니다. 늘 그 마음을 온전히 모아 아침기도로 '본당으로 가는 길'을 바칩시다.

◎ 공소 인터넷클럽 안내
공소의 대소사를 나누고 교우간의 친목을 위한 공간입니다. 많이 이용해주세요
주소 : http://club.catholic.or.kr/seobunews
문의 : 서기 한택중 (519 883 8488)

◎ 주간 전례
▶11월25일(화) 오후 8시, 연중 제34주간화요일
▶11월27일(목) 낮 12시, 연중 제34주간목요일
▶11월28일(금) 오후 8시, 연중 제34주간금요일

◎11월은 위령 성월입니다. 돌아가신 조상님과 부모 형제들을 위해서 미사와 기도를 바쳐주십시오. 우리들의 기도를 통하여 한분이라도 더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있도록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이스라엘, 이집트 성지순례
사순 2주, 3주 주님의 탄생과 수난과 부활을 체험할 수 있는 성지순례를 떠납니다.
일시: 2009년 3월10일 - 3월 24일 14박15일
순례비용: \$3,500(추가 비용 없음)
신청마감: 2008년 11월 23일(선착순 30명)
오는 12월 7일 올리아노씨가 오셔서 성지에 대한 안내와 함께 성지순례에 대한 우리들이 마음가짐에 대한 특강이 있겠습니다.

◎2009년 통신성서 신청
통신으로 성경을 공부를 합니다.
입문: 구약과 신약 각 1년
입문수료 후 중급과 바오로신학 수강가능
등록마감 : 2009년 1월 25일
자세한 내용 게시판 참조.(우편 및 인터넷가능)
문의 : 본당 신부

2008년 11월 16일 현금 내역	
주일 현금	: \$962.00
성전 건립 기금	: \$ 20.00
사 제 관	: \$600.00

Total	:\$1582.00

2008-46 2008. 11. 23.

그리스도 왕 대축일	
▶ 주일 미사	주일 낮 11시 30분
▶ 서부 공소 (주일)	오후 5시
▶ 동부 공소 (토)	오후 7시
평일 미사	주일 후보에 공지(화,목,금,,토)
성모 미사	매월 첫 토요일 낮 12시
성 시 간	매월 첫 금요일 오후 8시
주일 학교	주일 낮 11시30분 미사 중
에비자교리	매년 10월- 3월, 6개월 교육
유아 세례	매월 마지막 주(미리 신청)
건진 성사	2년에 일회
혼인 성사	결혼 6개월 전 면담
고해 성사	미사 전·후
병자 성사	병환 중과 임종 직전
주임 신부	고 원 일 안드레아

미사전례

해설 | 이해신 차주 해설 강진희

화답송

시편 23(22), 1-2ㄱ, 2ㄴ-3, 5, 6, (◎ 1)

(후렴) 주님 - 은 나의 목 - 자 나는 아쉬울 것 없 - 어 라.

복음환호송 ◎알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는 복되어라.
◎알렐루야

성가
입당 (73) 만민의 왕 그리스도
봉헌 (219) 주여 몸과 맘 다 바치오니
성체 (174) 성체 사랑의 신비
되장 (446) 우리 주의 사랑을

독서	
11월 23일	고영호 고기숙
11월 30일	김현태 김진선
12월 7일	신상우 신계연

봉헌	
11월 23일	이상재 이향숙
11월 30일	고영호 고기숙
12월 7일	김현태 김진선

복사	
11월 23일	류지홍 김건우
11월 30일	박규환 이현재
12월 7일	구한힘 이수민

천교	
11월 23일	환희팀 11 월 30일 영광팀
12월 7일	장미팀 12 월 14일 백합팀